

한국 포장디자인의 전통성에 관한 연구

최 동 신

홍익대학교 시각디자인과 교수

목 차

서론

- 1. 연구목적
- 2. 연구범위 및 방법

I.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

- 1. 전통문화의 개념 및 정의
- 2. 전통문화의 특성
 - 가. 문화의 종합성
 - 나. 문화의 조합성

II. 전통문화의 역할과 기능

- 1. 민족사관의 정립
- 2. 전통문화와 창조성
- 3. 전통문화의 독자성
- 4. 전통문화의 기능

III. 한국 포장디자인의 현황과 문제

- 1. 한국 포장디자인의 형성
- 2. 상공미술전람회 (현 산업디자인전)
- 3. 서울패키지 디자인협회 (현 한국패키지 디자인협회)
- 4. 일본의 현대 포장디자인
- 5. 문제와 제안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As of today-half a century has passed after 1945, the liberation from Japanese imperialism-it's significant to introspect our culture.

On the one hand our culture has succeeded due to the peculiar history, but on the other hand it hasn't.

So to speak, it has gained in quantity but lost in quality.

There are keen, international competition and exchange in the modern culture.

So the qualitative success of modern design depends on if it had an original character or not.

According to Korean rapid industrialization, technological extence, and economic growth, the export has increased greatly, but package design hasn't been match for them.

Korean expoters have been meeting with cutthroat competition in world market.

Under these circumstances it's very important that we have a real understand and interest in our culture, we strengthen the competitive power of home products with good package design.

This is our age of not home market but world market.

We live in an age when design wins, so that we have to develop the good design native to Korea.

Many designers have proposed their opinions with the characteristic designs, but it has been only a fragmentary and passive method.

We must seek for the new method more positively.

The effective and proper method resolves itself into the following four points.

First, to understand Korean history and culture.

Second, to have the exact grip of this economic situation.

Third, to promote the national emotion.

Fourth, in conclusion, to accord the package design with them.

We cannot put off this task to overcome the cultural subordination, to place Korea on a firm cultural basis in the world, and to contribute to the cultural exchange of package design.

1. 연구목적

1960년대이후 산업화가 급진적으로 추진되고 수출입국을 표방하면서 국가 차원에서 디자인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상공미술전람회라는 형식으로 나타났다. 특히, 1970년대에 들어와 경제적 성장과 소비성 문화가 발달하면서 급속히 확산된 외래 상품에 대한 모방과 기술 제휴를 통한 상품의 홍수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상공미술전람회를 통한 실험적이고 제한적인 작품들을 통해 발표된 포장디자인은 피상적이고 전시효과를 염두에 둔 개인적인 입장에서 접근방식을 택하였기 때문에 전통적인 성격의 디자인을 다분히 서구적인 또는 일본적인 아류로 전락시키는 사례가 나타났으며, 이는 전문적이고도 이상적인 비전이 결여 되어 있기 때문에 본원적인 해결의 핵심을 파악할 수 없음에서 오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

또 한편으로는 기업들이 진행하고 있는 실제 제품 및 포장관련산업은 대량생산과 판매촉진을 위한 비교 차별화에만 급급하였기 때문에 외국의 포장디자인을 모방하는 것을 상례화 하는 경우가 많았으므로 우리가 추구하려는 한국적이고도 개성적이며 창의적인 디자인은 매우 불확실한 것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므로 우리가 관행적으로 작품을 제작 발표하고, 상례화되다시피한 모방의 풍토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우리의 포장디자인 문화의 개성적 작업이 하루속히 정착되어야 한다는 문제의 해결은 우리의 문제이며, 이것은 다른 곳에서가 아닌 우리의 속에서, 다시 말하면 우리의 전통문화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에 귀결될 수밖에 없다.

2. 연구범위 및 방법

문화란 고대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전통에 바탕을 둔 것과 새로운 외래 문화와 교감하면서 새롭게 형성되는 두가지 유형이 있을 수 있다.

우리의 포장디자인 문화를 이러한 두가지 측면에서 볼 때 다 같이 문제의 심각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문물에 의한 서구적 디자인이 우리 속에서 형성되면서 가지는 문제보다는 전통문화와 연계되는 문제는 일제라는 식민문화에 의해 와해되고 분해된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려되는 바 크다.

1960년대 이후 급속한 외래문화의 지배하에 또 한번의 소외와 무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으나, 우리의 경쟁력과 포장문화의 우월성을 확보하

는 방법은 이것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의 인식을 바탕으로 하였다. 그러므로 전통적인 문화를 바탕으로한 새로운 포장디자인의 가능성을 찾기 위한 대상으로 연구범위를 제한하였다.

그리고 전통에 대한 이론전개와 한국문화의 특성과 근대 포장디자인의 형성과 전개를 고찰하고, 특히 우리의 포장에 기여한 두 단체의 활동을 비교 분석하였다. 국가적 정책 차원에서 포장디자인의 질적개선과 실용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전개한 상공미전(현 산업디자인전)과 실제 사회에서 활동하는 기업의 실무디자이너와 포장디자인 제작 사무실을 운영하는 디자이너 단체인 서울패키지 디자인협회(현 한국 패키지디자인협회)의 대표적 활동을 자료를 통해서 고찰하였다. 또 우리와 같은 문화권에 있으며 전통성을 활용한 포장디자인으로 세계화시키는데 성공한 일본 포장디자인의 배경을 고찰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현상적인 입장에서 포장디자인의 조형적 문제 위주 보다는 학문적인 접근을 통해서 그동안 우리가 시도하였던 부분적이고도 디자인의 실재를 통한 일반적인 접근에서 보다 더 근원적이고 논리적인 문제점을 역사성에서 찾고 그의 타당성을 제안하여 그에 따른 의식의 변화와 실제 작업의 상호 보완적인 방안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I.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

1. 전통문화의 개념 및 정의

“전통이란 한민족이 고대로부터 그민족의 문화 전반을 통하여 그 중심이 되고 생명체를 이루어 오는 불변의 구체적 세계관이며 질서 정연한 그 민족의 가치관이다”¹⁾

그러므로 전통은 오랜 세월에 걸쳐서 민족의 생활 감정에 동화와 공감의 여과를 거쳐 어느 한때 존재하다가 사라진, 역사속에 매몰된 것이 아니고 현재에 재발견되고 재창조되는 것을 의미한다.

“문화는 정신적이건 물질적이건 인간에 의해서 창조된 모든 소산을 총칭하는 복합적 개념이며” “문화 또는 문명이란 지식, 신앙, 예술, 도덕, 법률, 습관 기타 사회국성원으로서의 인간에 의하여 획득된 모든 능력이나 습성의 복합적 전체이다”²⁾

전통문화란 전통과 문화의 복합 개념으로 민족의 역사와 정신, 전통업과 혼이 깃든 절대 다수의 민중에 의한 자생적인 문화를 의미하고 전통은 그 구체적 표현으로서 전통문화로 완전성을 지니게 된다. 또한 전통문화는 그 원리와 생명으로서의 전통을 지니게 됨으로써 유물적(遺物的) 존재

1) 인권한, '한국민족사', 서울 : 열화당,

1978, p.153.

2) 위에 든 책, p.156

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다. 전통의 특징적인 요소는 전통이란 과거만의 가치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로 이어지는 존속적인 가치를 갖는 것이며, 오히려 현대라는 메카니즘 속에서 재창조되는 것으로 현재의 시공(時空)을 초월한 생명이며 실권을 통하여 체득되는 것으로 무조건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이 창조되는 것이다.

한 민족의 문화가 세계적으로 확대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구체적인 개성을 가져야 하는데 그것은 개체가 주체적 전통성에 입각하여 세계화로 지향되기 때문이며 전통이 곧 민족의 주체성 또는 민족적 개성에서 파악되는 민족정신의 원천이자 민족문화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세계화를 위한 민족의 문화적 정체성(正體性)정립을 위하여 우리의 전통문화에 대한 긍지를 회복하여야 하며, 전통문화를 재현, 복원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역사적, 사회적 맥락에서 이해와 파악이 필요하며 외래문화도 그와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하여 선별적으로 수용함으로써 전통문화를 재 발견하고자 하는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2. 전통문화의 특성

가. 문화의 종합성

모든 나라는 다양한 성격의 문화들이 수시로 유입되어 여러 계열의 문화가 축적되어 왔으며, 한 나라의 문화 자체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 축적되는 문화를 종합하고 정리하지 않을 수 없다.

문화의 특징은 모든 문화 가치를 종합 정리하여 그것을 자기 체계안에 배열하여 포섭하는 능력을 갖는 것에서 오는 것이므로 이러한 특질을 여러 나라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게하며 그러한 국제문화 전체에 대한 인식의 확대과정에서 국제문화 기준을 자기 문화의 기준화함으로써 종합과 정리가 가능해질 수 있다. 이러한 종합과 정리방법에서 한 나라의 문화의 기반이 구축될 뿐만 아니라, 그것이 그 이후의 변화를 추진시키는 방향까지 결정하면서 더 나아가 전통문화의 체질과 기본 성격까지도 결정하는 요인이 된다.

다시말하면, 문화를 종합하고 정리하는 과정에서 철학체계가 나올 수 있으며 문화간의 대립을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에 의해서 발전된 새로운 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문화의 부흥을 가능하게 한다.

나. 문화의 조화성

문화라 함은 전통문화와 외래문화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전통문화의 잠재 능력과 외래문화의 새로운 생활 역량이 한 사회의 문화를 축적하게 된다.

이러한 문화의 힘들이 제기능을 발휘하려면 우선 그 문화가 활동할 수 있는 확대된 문화의 광장과 문화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 다음은 전통문화와 외래 문화간의 갈등과 상호 조절과정을 거치고 각기 적절한 관계를 모색함으로써 힘의 균형과 방향을 조절하는 조화과정을 가짐으로써 한 문화의 전체의 방향이 설정될 수 있다. 더 나아가 객관적인 국제 문화의 기준에 입각하여 먼저 문화자체에 대하여 원리적이고도 근본적인 이해를 할 수 있을 때에 자기 문화의 조화된 운영이 가능한 것이고, 반대로 자체 문화의 개성적 방향을 파악 할때에 비로소 국제 문화 기준의 정확한 이해도 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보편적 가치를 자기 것으로 만들면서 성장하는 개성에 근거하지 않는 문화 기준은 의미가 없으며, 문화 발전에도 기여할 수 없다.

우리의 문화는 일찍부터 폭 넓은 종합과 조화의 과정에서 자기 개성을 성립시킨 문화 전통을 가졌기에 스스로의 철학 세계를 가질 수 있었고 또 이러한 개성이 있는 자기 세계가 있었기에 독특한 문화를 유지 발전시켜 왔다.

II. 전통문화의 역할과 기능

1. 민족사관의 정립

어느민족이나 어떤 시대에 있어서도 자기 생활의 타당성을 주장하고자 하는 사관(史觀)이 있어 왔다. 사관이 자기 생활을 주장함에 있어서 먼저 과거로부터 축적하여온 문화능력과 전통적인 자기 생활능력을 의식하면서 그것을 재검토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그 다음은 현재의 문화와 현재의 생활 능력을 새롭게 증강시키는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아가야 한다. 그리고 사관은 국민으로 하여금 미래를 전망하는 시계(視界)를 가능하게 하여야 하므로 과거 문화를 정리하는 기준으로서의 기능과 더불어 현재의 생활총체를 운영하는 기준을 설정하고, 나아가서 그 설정을 통해서 전망할 수 있는 미래상을 제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또 실제로 그러한 기능들을 발휘하여 왔다. 이러한 기능에 대한 바른 인식과 그 기능의 활발한 발휘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종합적으로 통찰할 수 있는 그 시대, 그 집단 나름대로의 철학이 성립 되어 있을때만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문화는 36년 간이라는 일본의 식민지 정책에 의해서 말살되어 왔기 때문에 식민지 문화 체질의 한계성과 종래 사관의 한계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특수성을 갖게 하였다. 일본 식민지 문화정책은 우리 민족 스스로 근대 문화를 건설하고 운영하는 기반과 기회를 박탈하고 근

대 문화 의식도 성립될 수 없게 하여 문화 의식도 전통문화에 대한 근대적인 인식도 성립될 수 없었다. 다시말하면 문화 자체를 상실하였기 때문에 근대 문화를 건설하는 실천 경험이 불가능하며 더욱이 근대 문화의 본질을 알길이 없었던 것이고, 자기가 사는 시대의 문화의 의미를 알지 못 하였으므로 전 시대의 전통문화의 의미도 올바르게 알 수 없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자주적인 근대 문화 건설 경험의 결여라는 식민지 체질의 한계성이 1945년 해방 이후 오늘날 까지 계속되는 혼란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식민지 문화 체질의 청산이야말로 전통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그 계승을 가능하게 하는 전제조건이 될 수밖에 없다. 전통문화의 계승은 무의식적인 관습의 계승이 아니라 비판의 과정을 거치는 문화의 자기 정리의 것을 의미한다. 문화 전 분야에서 받고 있는 한계성을 극복하고 미래의 전망을 바로 잡고자 하는 정신 활동은 사회활동으로도 나타나고 종교적 활동형태로 나타나며 또 학문적 활동으로도 나타난다. 오늘날 문화의 전반적인 정리는 학문적 연구 없이는 불가능하므로 학문 활동은 문화 한 분야, 사회 한 계층의 경험만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문화 총체를 구성하고 있는 각 분야 각 계층의 경험등을 총정리하여 보다 통합적이고 객관적이며 보다 체계적인 이해에 도달해야 하며 그러므로 확실하고 가치 있는 문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학문적 인식이 과거의 상황이나 우리가 처한 현실에 대한 해석과 판단을 좀 더 정확하고 객관적인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는 한편으로 과거의 문화 가치 기준이었던 전통과 전통적 사고 방식에 하나의 기준을 두면서 판단하려고 하고, 한편으로 새롭게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현실을 이해하기 위하여 과거 보다 훨씬 새로운 학문의 인식 방법을 적용하면서 판단하려 한다. 사관은 어느 시대에 있어서도 이 두가지 정신 활동의 통합에서 이루어 지는 것이나, 전통의 인식이나 학문의 연구가 시대에 따라 발전하고 변화 하므로 이 두 가지 사고에 의해서 설정 될 수밖에 없는 사관도 시대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오늘날과 같은 급격한 문화 변동의 파동 위에서 이 두가지 사고를 통합적으로 전개시키면서 전통문화에 대한 새로운 이해 체계를 세우고 보다 확실한 미래상을 제시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편견들을 극복해야 한다. 우리 역사를 보는 사관이 투명하고 혼란에 빠져 문화 활동 전반에서 갈피를 잡을 수 없게 된 것은 학문전반의 수준이, 더 나아가서는 우리 문화 전반적인 수준이 하나의 사관을 성립시킬 수 있는 단계에 다달하지 못한 것을 의미한다.

2. 전통문화와 창조성

우리가 필요로 하는 자주적인 정신의 확립은 외래문화의 지배를 거부하고 종속문화화에 저항하는 문화운동의 실천이 우선되어야 하며, 또 한국의 전통문화와 전통이 가지는 잠재적인 문화능력에 대한 지속적인 신뢰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전통문화에 대한 높은 비판 정신이 뒤 따라야 한다.

자기의 전통적인 체질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하지 않고 하는 비판은 의미가 없으며 그것은 오히려 자기 전통을 말살하려는 세력에 동조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한다. 또한 현대적인 비판정신의 확립 없이 전통의 고수만을 주장하는 태도도 창조성이 결여된 문화적 무능력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문화의 창조적 활동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통문화의 신뢰와 비판이 함께 있어야 한다는 의미는 그것이 곧 생활능력을 끊임없이 증대시켜 나아가는 것이며, 문화가 활동하는 능력이기 때문이다. 문화는 인간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취득한 생활능력을 말하는 것이며, 더 나아가 한 집단 생활을 영위 할수 있는 가치체계의 설정 능력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그것은 모든 생활가치를 판단하는 공약수적 기능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한 사회가 수 많은 노력 끝에 찾아진 공약수적 기준은 구성원 전체가 인정하고 그에 준하여 생활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기준이 되어야 하며 사회 구성원 전체가 그 기준의 규제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생활능력이 어느 분야에서 든가 새롭게 발전되면 그 문화 총체를 관리하던 기준도 또한 달라 지면서 그 발전한 문화 전체의 상관 관계를 다시 조정하여 새로운 조화관계를 만들어 나아가야 한다.

전통문화를 신뢰한다는 의미는 기성의 문화능력이나 생활 능력을 앞으로 발전을 추진시킬수 있는 기초능력으로서, 그리고 다시 전진할 수 있는 출발능력으로서 신뢰하는 것이어야 하며 전통문화의 능력을 완성된 것으로서 간주하거나 새로운 창조 활동을 방해하게 되는 기성의 규제에 무기한으로 복종하는 것은 더욱 아니다. 그러므로 어떤 시대에 있어서도 한시대 문화의 한계성을 인식하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선 전통문화가 갖고 있는 문화체질에 대하여 끊임없는 비판이 진행되어야 한다.

문화에 대한 이해는 각 시대마다 문화가 변천하는 것을 파악하는 것이며 전시대 문화의 한계성을 극복하는 어려움을 인정하는데서 출발하는 것이어야 하며, 이러한 수 많은 어려움을 극복해 나아가는 것이 문화의 발전 과정이다. 다시 말하면 자기 문화 한계성을 인식하여 항상 새로운 능력으로서 민족 전체의 생활능력을 증강 시킬때 비로소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문화 형성이 가능해 질 것이며, 자기 결함을 모르는 문화는 시대가 변화하면 방향감각이 마비된 문화가 되어 버리기 때문에 바람직한 문

확실거나 문화 철학도 기대할 수 없게 될 것이다.

3. 전통문화의 독자성

날로 심화되고 있는 국제문화의 경쟁에서 독자성과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기 한계성을 인정하고 극복할 수 있고, 또 문화의 다양한 발전을 찾아 나아갈 수 있는 탄력성을 가지고 자신있게 자기의 방향을 추진시킬 수 있는 사관이 우선 성립되어야 한다. 특히 우리가 유지해야 할 사관의 방향은 현대 문화의 수립이라는 시대적 사명을 인식하는 방향에서 결정되고, 그러한 사관의 기반은 객관적 인식 기준을 떠나서는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을 이해 하는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이러한 민족사관을 바탕으로하여 식민지 체질을 청산하고 전통문화의 잠재능력과 현대문화의 건설을 연결시켜 우리문화 능력을 증강시키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하며 실천적 과제로 인식하여야 한다.

1960년대 이후에 들어오면서 전문 분야에 대한 역사인식이나 연구 방법을 찾으며 개선하려는 노력이 시작 되었으나 문화에 대한 역사 자체의 자료정리가 되어 있지 않아 새로운 인식방법의 폭은 제한될 수 밖에 없었다. 그리고 인접 분야의 학문적 수준들이 교과서적 이해 수준에 머물러 있어 미숙하다는 양면적 결함이 상승작용을 하여 오히려 역사 인식의 자세나 양에 있어서 수준이하에 머물게 하였으며 전통문화의 올바른 이해를 거부하거나 경시하는 풍조가 학문에 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어느시대나 어느민족이 가지고 있는 문화의 수준과 성격은 그 문화를 담당하고 있는 각 분야별 학문의 수준에 의해서 결정되어 왔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과거의 전통문화가 그 당시 수준의 학문들이 담당하였던 각 분야별 문화가 복합되면서 발전하여온 결정체이며, 마찬가지로 오늘날의 각 분야별 학문자체는 곧 오늘의 한국문화와 역사를 구성하고 있는 기본 요소들이라는 것 또한 확실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학문들은 자기 학문이 성립하는 토대이며 광장인 한국문화 그리고 한국역사와는 무관한 것처럼 착각하고 있으며, 또 각 학문의 현실적 수준의 미숙성은 인식하지 못하고 한국 문화의 전통을 경시하는 풍조까지 나타냈다. 따라서 우리 문화가 이러한 현대 학문의 미숙성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현대문화 역량을 증강하면서 민족문화의 바른 방향을 제시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또 한편으로 지난 50년의 경험을 통하여 볼때 역사와 문화는 시간과 노력의 투자 없이는 찾아 질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경제적 성공으로 경제력이 마련됨으로써 근대 문화의 기반을 구축하면서 문화의

대 전환을 이룰 수 있다는 자신을 갖게 되었다. 특히 우리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임기응변적인 방법이나 미봉적인 것으로 해결할 수 없는 보다 근본적이며 핵심적인 것임을 알아야 한다.

이러한 인식과 경험들을 검토해 볼때 우리 문화의 현대적 기반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지불해야할 대가는 지금보다 더 크고, 또 그 효과는 지금 당장 나타나는 것은 더욱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을 예견하고, 앞을 전망하고 위대한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기초가 되는 것임을 이해 할 때가 왔다고 볼 수 있는 징후는 여러 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문화를 건설하는데에는 장시간에 걸치는 노력의 역사적 가치를 국민으로 하여금 바로 인식하게 한다면 전국민이 스스로 인내하면서 새문화 건설에 참여할 것을 확신할 수 있다.

새로운 토대를 쌓는 일이 매우 어렵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며, 이것이 형성 되었을 때 우리의 현대 문화는 독자성을 가진 문화로서 그 위치를 확고히 할 수 있을 것이다.

4. 전통문화의 기능

어느 민족이나 어느 지역에 있는 인간의 사회 집단이 한 시대를 생활한 문화가 갖는 생활능력과 그 생활 능력의 가치는 시간적, 공간적으로 전달되고 계승되는 것이 특징이다.

문화란 한 개인이나 가족이 획득한 생활능력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간사회가 획득한 보편적인 가치이며, 더 넓은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능력이다. 그러므로 일단 형성된 문화는 그 문화를 창조한 사회집단이나 민족이 쇠망하더라도 다른 사회 집단이나 다른 민족에게로 전달되면서 인간의 생활능력을 그대로 보존하는 창고의 기능을 스스로 갖게 된다. 한 민족의 문화 전통의 성립은 곧 그 민족이 다양한 생활 능력을 계속적으로 축적하는 거대한 창고가 축성된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 창고가 충실할 때 비로소 그 민족의 생존과 발전도 보장될 수 있다.

외국문화의 수입과정과 새로운 생활능력을 통해서 이루어진 새로운 문화의 경향들은 상대의 문화 능력을 증강 시키기도 하고 반대로 문화성장의 억제와 해체를 가져오기도 한다. 이와 같이 문화의 성장과 억제는 한 나라의 문화 기반이 충분한 관계 설정이 되어 있지 않을때 나타날 수 밖에 없는 문화생리의 차이에서 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차이를 조화시키고 극복하는 노력과 정책이 부족할 때에는 서로의 문화 차이가 지배와 예속의 대립 양식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 대립 경향이 강할 때에는 문화 기반이 축소 해체되어 전체적인 관계가 붕괴되면서 문화발전의 한계성에

한 민족의 전통문화란 이러한 각 시대의 모순과 대립을 극복하는 능력까지 갖춘 것을 말하며, 각 시대에서 되풀이 되는 모순을 극복하고 자기 문화를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아가는 역사과정에서 성립된 문화 전통이 있을때에 비로소 민족적 생활 능력의 자기 인식 체계를 수립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문화전통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의 체계는 안으로는 자기 사회를 운영하는 공약수적인 기준이 되고, 밖으로는 외래문화를 취사 선택하는 기준이 된다. 이 기준이 보수적 경향 보다는 새로운 생활 가치를 창조하고 보다 나은 생활능력을 전망하는 입장일때 전통적 가치관은 문화 기준의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민족문화는 이러한 자기 전통문화의 기준과 방향을 상실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새로운 외래 문화 요소를 복합하여 문화의 폭을 넓히는 과정을 통해서 자기 발전이 계속될 수 있는 것이다.

인류 문화의 계속적인 증강과 발전은 그것을 가능하게 한 과거 문화들이 보유하고 있는 능력이 있음으로 가능해 진다. 다시 말하면 과거 문화가 그 문화를 전진시킨 성과와 토대는 또 다시 새로운 문화를 등장시키고 보다 전진시킬 수 있는 기본 능력을 제공하는데 공헌한다는 것이다.

과거에 제기 되고 그것이 극복되었던 과제들도 문화의 광장이 확대 되면서 새롭게 발전하고자 할때 그 과제들이 또 다시 제기되어 보다 새롭게 극복되는 것이므로 한 시기의 극복 능력은 다음 시기의 그 분야의 한계성을 극복할 수 있는 토대가 되고 잠재 능력이 되는 것이다.

Ⅲ. 한국 포장디자인의 현황과 문제

1. 한국 포장디자인의 형성

그래픽 디자인이 우리나라에 도입된 시기는 1910년부터 1945년에 이르는 식민시대에 일본을 통해서 들어 왔으며, 그들에 의해서 지배되어 왔기 때문에 포장디자인도 동일한 개념으로 파악될 수 있다.

1945년 8.15 해방은 일제로부터 우리민족의 주체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문화 및 사회적으로 근대로 전환하는 시기이며 폐쇄 사회에서 개방사회로 탈 바꿈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것은 식민지 문화의 종식을 의미하는 시간상으로 보는 개념 이상의 것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문화적인 영향력은 아직까지도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하는 것 또한 사실이다.

또 이러한 시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은 우리의 문화와는 다른 것이

었으며 우리의 의사와는 관계 없이 순간적으로 닳아 왔다. 일본이 항복하여 한반도에서 철수하고 미군이 진주한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그 방법상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나 단순히 일본문화의 지배가 미국 문화로 대체 되었다고 볼 수도 있다. 특히 미국의 문화는 우리를 지배했던 일본이라는 동양적인 문화권과는 이질적이며 우리가 그 동안에 겪었던 어떠한 유형의 문화와의 조우 보다 색다르고 새로운 것이었다. 이러한 기존의 문화유형과 전혀 다른 문화의 충격은 신선하면서도 절대적이었으며, 더욱이 일본의 식민지배로 전통 문화의 해체와 단절상태가 발생시킨 특수한 공백기였기에 더욱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 이것은 우리가 해방되면서 찾으려 했던 모든 분야에서의 주체성에 대한 심대한 타격을 주어 그 전개를 혼미하게 한 원인이 되었다.

한국주둔미군들을 통해서 접하게 된 식품포장은 그 맛과 더불어 미국의 포장디자인을 우리에게 새롭게 느끼고 인식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캔류의 식품포장을 위시하여 담배 포장 디자인은 우리에게 미국디자인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심어주고 더 나아가 미국제품에 대한 동경과 선입견을 갖게 하는 요인이 되었다.

1950년 6.25 동란까지의 5년이라는 기간은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분야의 혼란기였으나 일본 식민정책으로 폐허가 된 우리문화에 대한 열정과 활기있는 활동들이 보였으며, 그 시기의 새로운 시대적 인식에서 순수한 시작일뿐 그 바탕이나 목적의 뚜렷한 설정 없이 의욕이 앞선 표출의 한 단면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6.25동란이 일어나면서 UN군이 참전하게 됨으로써 다양한 서구문화가 군사문화라는 특수체질로 이 땅에 자리 잡으면서 바람직하지 못한 상황으로 급속도로 전개되어 우리의 문화를 새롭게 시작하려는 꿈을 더욱 요원하게 하는 동인이 되었다.

다시말하면 일제시대의 우리산업, 우리문화가 철저히 배제되고 일본 문화를 공급 받던 시기에서 또 미국의 문화를 일방적으로 수용할 수 밖에 없었던 특수한 우리의 상황을 사전의 준비나 계획도 없이 주어졌기 때문에 경제적인 지불이나 지적 소유에 대한 지불도 없이 차용하는 무감각한 경험을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경험들은 우리에게 편의성에 쉽게 동조하는 습관을 길러 주게 되어, 우리로 하여금 상대에게 정당한 대가 없이 또 양해도 없이 모방하는 습성에 익숙해지고 이러한 잘못된 관행은 우리의 정신을 황폐화하게 하고 창의적인 능력이나 태도를 찾아 보기 어렵게 하는 근원이 되었다. 그 결과 우리 주위에서는 미제 상품의 모조품을 제조하는 형태로 나타나게 되었으며 이러한 포장디자인에 대한 초기의 경험

은 우리의 뜻과는 달리 부정적인 면에서부터 출발하는 불행한 과거를 갖게 되었다. 한국의 포장디자인이 전무한 황무지에서 세계에서 상업주의가 제일 성공한 미국의 포장디자인을 접하면서 기술적으로나 감각적으로는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으나, 그것은 대국적이고 민족적 차원에서 포장 디자인 문화 형성에 준 폐해는 간과 할 수 없는 것으로써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대부분들이 여기에서 연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여건에서 이루어진 한국포장디자인의 수용은 내재적인 작용보다는 일방적인 외적인 작용에 의해서 일어났기 때문에 선택이나 창조하는 개념은 있을 수 없었다. 특히 60년대에 들어와 산업화가 급진적으로 추진되고 70년대에 들어와 수출입국이라는 명제 아래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되고 촉진된 디자인의 필요성은 절실하고 현실적 해결을 요구하였기 때문에 모방은 억제할 수 없는 단계에 접어들게 되어 창의성이나 국적있는 포장디자인의 정착은 더욱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다.

2. 상공미술전람회(현 산업디자인전)

1960년대 초부터 시작된 경제개발의 계획은 구체적으로 1962년에 추진된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성공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이에 고무된 정부는 국민경제의 성장과 발전의 길은 수출증대라는 것을 인식하고 경제 자립의 목표달성은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품디자인 개선에 있음을 알게 되었고 그 육성책을 찾는 데서 시작되었다.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탄생된 대한민국 상공미술전람회(1966)는 산업입국과 수출증대를 국가적 시책으로 추진하여온 정부가 수출산업에 직접 기여할 수 있고 창의적인 공산품을 개발하여 국적있는 디자인산업을 진흥할 목적으로 개최된 공모전 형식의 전시 행사이다.

초창기의 실질적인 운영자였던 추천작가 심사위원들이 대부분 디자인 교육계에 종사하는 교육자들로 구성되었으며 작품을 출품하는 대상들은 대부분 대학생들이었으며, 대학의 교육은 창의적인 작품성향의 제작을 강조하고 권장하였기 때문에 실제적인 디자인의 문제 해답을 해결하는 요소보다는 전시장이나 전시에 적합한 작품을 제작하기를 선호하고 익숙해 있었다. 특히 발표의 장이 별로 없고 기회가 없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상공미전에 대한 관심과 열기가 높았다. 그러나 그것은 전람회의 목적과는 처음부터 유리된 창작위주의 작품으로서 전시효과를 위주로 하고, 또 국적 있는 디자인 보다는 해외의 사조나 경향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이를 추종하는 차원이었기 때문에 그것의 대부분은 모방의 단계에 머무는 것이었다.

행사의 취지나 목적에 부합하는 성격을 구현하기 위하여 수출에 직접 기여할 수 있는 디자인, 수출산업과 소득증대를 위하여 생산이 가능한 방향으로 유도하여 심사하고 수상도 하였으나 대부분의 작품은 포스터에 집중하였으며 포장디자인은 소수에 지나지 않았다. 대부분의 디자인들이 실험적이거나 외국의 경향과 사조에 밀착되어 있어 우리현실과 거리가 있었으며 더욱이 한국적인 전통이미지 표현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특히, 전람회 초기의 작품들은 대부분 손작업에 의하여 표현되었기 때문에 생산체계와는 별개인 일품작업 성격으로 제작되었으며, 이것은 인쇄 프로세스의 이해나 그래픽 디자인의 기능과 그 목적에 대한 물이해를 가져와 사회와 유기적이라기 보다는 독창적인 실험주의 작업에 치우쳐질 수 밖에 없었으며 이러한 현상은 그 이후에도 계속 유지되는 특성으로 남아있게 되었다.

상공미전 초기는 국가가 요구하는 포장분야는 저조하였는데 그것은 출품자들이 전시취지나 성격을 파악하지 못한 것에 연유하는 것이었으며 2회(1967)부터는 실크인쇄, 올셋인쇄, 칼라사진을 이용한 작품들이 일부 등장하였다. 특히 포장은 그 매체 특성상 또는 작품 구성상 인쇄형식을 취하지 않고서는 해결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효과적인 측면에서도 손작업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초기부터 일부이기는 하나 인쇄 작품이 출품되었다.

포장 디자인은 4회(1969)이후 수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상품의 수출을 위한 한국상품이라는 이미지 표현에 관심을 가지고 디자인된 작품들이 등장하고 기능적이고 인쇄기법으로 처리된 것도 있었다. 그러나 5회(1970)에서는 포장재료의 선택의 다양화 상품의 특성에 따르는 시장성, 용도의 다목적, 한국 상품의 특징화에 노력하였으나 시각적인 면에서 강하게 어필하고 제품의 가격과는 관계 없는 과잉포장 사례들이 나타나 심사용이라는 새로운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그동안 한국적 고유 패턴이나 사실적 대상을 소재로 한 표현들이 매회 출품되었으나 변형과 왜곡으로 인한 이미지의 상실을 초래한 것들이 많았다. 이것은 소재는 한국적인 것이나 색상이나 표현기법들이 대부분 서구적인 것으로 변화된 것에서 연유하고 있다.

1970년 재단법인 한국디자인포장센터가 승인되어 디자인과 포장기술의 개선 향상과 우수한 수출상품 포장재료의 저렴한 공급과 연구개발에 필요한 사업, 그리고 우수한 수출 상품의 고급화를 위한 연구 개발 작품의 실용화에 중점을 두어 업계의 국제 경쟁력 강화에 적극 기여할 것을 목표로 설립되었다.

디자인포장센터에서 처음 주관한 6회(1971)전에서는 정책의 변화에 맞추어 많은 수의 포장디자인이 출품되었으며, 특히 인쇄기법으로 실크 스크린인쇄와 오프셋인쇄가 도입되면서 지금까지의 시작품 수준을 넘어서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수요자의 기호와 용도의 다목적성에 부합하는 의도를 표현하기 보다는 대작 위주의 경비를 과다 지출함으로써 대형화하고 시각적으로 전시효과를 돋보이는 흥미를 가지게 되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큰 상과 연결되어 수상됨으로써 그 상을 목적으로 하는 대형위주의 포장디자인 출품을 선호하도록 계기가 되었다.

기존업체의 상호와 상품을 사용하게한 7회(1972)전시회에서는 학생 위주에서 산업현장에 있는 일선 디자이너들에게 참가를 권장함으로써 작품의 성격도 직접 수출에 기여할 수 있고 실용화의 가능성을 높이도록 유도하였으며, 일선 디자이너들의 참여로 손작업 위주에서 제작 품도도 인쇄로 대체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다. 그러므로 포장디자인은 전반적으로 인쇄를 통하여 실제적인 디자인 효과와 상품성을 측정하는데 도움을 주었으나 한편으로는 6회, 7회전에 걸쳐 나타난 수상을 목적으로 하는 대형화 현상은 전시효과에 치중하게 함으로써 실용화하는 더욱 거리를 멀게 하였다.

특히 한국포장대전을 새로이 설치하여 공모작품과 비교 전시하여 산업계와 디자인계의 협조체제를 마련하는 기획을 가지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전시회 명칭이나 제도, 운영의 개선을 통해서 부각되는 문제점들은 보완하려는 노력은 계속되었으나 큰 실효는 얻을 수 없었다. 80년대에 들어와 포장디자인 대상의 다양화와 착실한 연구를 바탕으로 한 진지한 작품들이 일부 출품되기도 하였으나 대부분은 인쇄를 매개로한 표현효과와 세련미를 향상시키는 데에만 급급하였으며 이러한 현상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시대에 따라 관심의 대상은 다양하게 변해왔는데 80년대 이후 우리 것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산업화에서 파생된 환경문제로 새로운 표현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새로운 작품의 대상일뿐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그 이상의 접근은 아니라는데 문제가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산업디자인, 시각디자인, 환경디자인, 공예디자인의 분야별 수상 경합이 심화되면서 포장디자인과 다른 시각디자인 매체의 복합적인 구성 작품들이 유행하면서 더욱 작품 규모가 방대해지는데 반해서 포장의 전문성과 질은 더욱 악화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3. 서울패키지 디자인협회(현 한국패키지디자인협회)

60년대 중반이후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기업 활동의 근대적 개념이 도입되면서 포장 매체가 구체적으로 필요하게 됨에 따라 전문인으로서의 디자이너의 사회참여가 가능해졌다. 그러나 실험이나 계몽의 단계가 아닌 실전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오류와 착오를 범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것은 한국의 디자인 전문교육의 아카데미한 교육내용이나 성향에 영향 받은바 크고, 사회나 산업과 연계된 환경이 아닌 그 이전의 경험 밖에 없었기 때문에 당연한 것으로 받아 들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포장디자인의 형성과 전개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나 전문성이 디자이너와 사회 또는 기업간에 정립되고 유지될 수 없었기 때문에 기획, 제작, 활용에 필요한 적절한 이해와 지원이 보장될 수 없게 하였으며 이러한 열악한 조건에서 결과적으로 기업에 실질적인 기여를 해야 하는 부담은 외국의 디자인을 모방하는 사례로 나타나게 되었다.

우리의 포장문화는 근대적인 경험도 없고, 기본적인 바탕도 없는 상태에서 의존할 수 있는 것은 외국의 상품포장 현물과 서적을 통해서 밖에 다른 방법은 없었으므로 무분별하게 모방하는 풍조가 만연하게 되었으며, 또 외국사조에 맹종하는 상황이 계속 되었다. 특히 1960년대 이후 일본의 포장디자인 상품과 전문서적이 보급 됨으로써 기업이나 실무 디자이너들에게 준 영향은 매우 크고 계속돼 오기 때문에 해방 이후에도 일본의 영향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척박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디자이너 상호간의 자질향상을 도모하고 산업계 포장디자인의 육성 및 국제적 교류와 한국 포장디자인의 발전을 기할 목적으로 1978년에 서울패키지디자인협회를 결성하였다. 서울패키지디자인협회는 국내 유일의 패키지 디자인 단체로 산업계 디자이너로만으로 결성 되어 기업과 사회 대중들에게 패키지디자인의 중요성을 인식 시키고 낙후된 포장디자인 분야를 개선시킴으로써 우리나라 기업이 국내의 시장에서 강력한 상품력을 가지고 경쟁할 수 있도록 디자이너의 힘을 축적 발휘 하기 위해 1979년에 창립전을 출발로 여러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회보 발간은 물론 정기적인 회원전과는 별도로 우수 포장 콘테스트전을 개최하여 회원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행사와 3회에 걸쳐 해외 유명포장 전문가를 초청하여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1993년에는 한국, 일본, 대만, 홍콩, 중국 상하이의 포장디자인을 서울에서 전시하고 세미나를 개최하는 국제 교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해가 되었으며 1994년에는 처음으로 포장 디자인의 저변확대와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모전을 시

작 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활동 영역과 질적 향상을 위한 노력은 15년간 계속되어 왔으나 우리의 포장문화가 눈에 띄게 새로워 졌거나 달라진 것을 발견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이것은 출발에 지나지 않았으며, 또 우리가 바라는 것은 지금 당장이 아니며, 우리의 문제가 그렇게 단순하게 개선될 대상도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이고 보다 과학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여 점진적으로 그 목적을 달성하기를 기대한다.

4. 일본의 현대 포장디자인

명치유신 이후 서양문물을 받아들이면서 디자인 역사도 같이 하였으나 실질적인 발전은 2차대전 이후라고 볼 수 있으며, 일본도 패망 이후 미국의 진주로 그 영향권에 놓이게 되었다. 그러나 일본은 우리와 같이 전통문화와의 단절은 없었으며 특히 1950년대 이후 외국 디자이너들의 초빙과 전문서적을 통해서 미국과 유럽의 사조와 디자인을 소개하였으며 또 교육을 통한 잠재력을 키워 세계시장에서 일본 상품의 수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 시작했다. 간접적으로는 Bauhaus에서 직접 교육받은 디자이너들의 영향을 받아 비교적 일찍부터 현대 디자인의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Raymond Loewy가 1950년대에 Peace담배를 디자인 한 것은 포장디자인의 중요성을 현실적으로 인식시키는 좋은 기폭제 역할을 했다.

수출진흥과 경제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소비 제품에 대한 디자인 인식은 크게 신장되어 디자인 유학생을 해외에 파견하고 1950-1960년대에 이르러서는 해외 시찰단을 보내고, 외국 의 강사를 초청하는 등 적극적인 디자인 진흥책을 추진 하였다. 특히 1960년대의 일본 기업들은 정부의 소득배증계획과 함께 설비투자 경쟁과 해외시장 개척에 몰두하던 고성장의 시기였고, 기업들은 국제화를 추구하는 것이 지상 목표였기 때문에 서구적인 디자인의 모방에 심취되어 있었다. 1970년대에 경제적 번영을 성취하면서 국제화를 추진한 이면에는 사회적 문제들이 대두되고 물의를 일으키는 사례가 나타나면서 그에 따른 비판이 대두었기 때문에 기업의 이미지 쇄신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이러한 개선의 방법을 전통문화의 활용에서 찾게 되었다.

1970년대 이후 정부를 위시해서 공공단체 디자인 관련기관 디자이너 단체 관련 국가기구가 총합적으로 디자인 진흥을 추진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디자인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심화시키고, 산업에 대한 디자인 진흥책의 강화, 국제 교류 강화, 디자인 진흥책의 체계적인 추진, 디자인 진흥을 위한 시설 정비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이러한 행사의 하나로 1960년 이후 격년제로 열리고 있는 'Tokyo Pack'은 국제적인 포장 기자재, 포장 재료, 포장기술, 포장기법 등의 교류를 통해서 일본 포장문화의 총체적인 능력과 수준을 과시하고 더 나아가 포장 공해의 해결 방안까지도 제시함으로써 일본 포장문화의 신뢰감을 증진시키는데도 기여하고 있다.

1980년대를 '문화의 시대' 라고 이야기하며 기업도 소비자도 문화 지향성을 강하게 나타내고 있다. 그런 점에서 있어 기업이나 소비자들의 고차원적인 욕구를 만족시키고 또 유인하는 문화 이미지의 부가 가치를 개발함으로써 다른 기업과 차별화하고자 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일본 포장 문화는 세계화를 추구하면서 한편으로는 문화를 수출하는 차원의 디자인 정책하에 일본적인 디자인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국제 사회속에서 일본이 그의 일원으로써 공헌하기 위해 우선 가치관의 국제 비교를 통해서 일본의 가치관을 다각적으로 비교분석하여 정립하고, 이를 적절하게 표현하는 것이 기본이라는 인식에서 '일본의 주장'을 강조하고 있다.

5. 문제와 제언

우리 포장디자인의 문제 인식과 해결 방법은 국가의 정책이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현실적 문제에 집착하고 그것에 가치를 부여하는 풍토와 실험적이고 창의적인 작품 성향의 경향등 2중 구조를 이해하는데서 출발되어야 한다. 산업디자인전과 기업체의 디자이너들도 동일한 접근법을 시도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결과는 단편적인 해결에 그치고 근원적이고 총체적인 해결은 불가능하다는 좌절을 맛보게 되었다. 이러한 과오나 오류는 지금까지 경험해 왔으며 최근에 와서 근원적 해결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포장디자인 발전 방향과 목적설정이나 그 방법상의 효과적인 결실을 위해서는 학문적인 연구와 그 결과에서 찾아질때 진정한 해결책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인식을 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학문적인 연구가 우선 이루어지는 풍토가 되기 위해서는 포장디자인의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부분은 민간 포장디자인 전문 단체에게 넘기고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의 기능은 연구하고 지원하는 체제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한편으로는 전문학술단체로 한국포장디자인학회가 1993년에 창립되어 1994년에 논문 1집이 나왔으며, 1994년에 한국디자인학회가 발족되어 세미나를 개최하고 논문집을 준비하는등 연구 사업계획을 시작하는 단계에 있다.

이러한 학술단체들과 연구단체들이 제자리를 잡고 연구체제를 확립하므로써 우리의 포장디자인 문화의 새 지표를 제시하여 주기를 기대한다.

1960년대 이후 산업화의 진전으로 기업은 가격 경쟁과 공급량의 조절로 소비자를 확보하는 시장지배가 경영의 중요 목표가 되었기 때문에 기업은 물론 소비자들도 포장디자인의 문제는 인식의 단계 이전이었으므로 창의적이거나 문화적 차원으로의 이해는 더욱 어려웠다. 그러므로 주체적인 디자인의 문화적 전통개념과는 더욱 거리가 멀었으며 제품의 이미지가 고급화를 위한 디자인이나 전통성에 근원을 둔 자체적 디자인 개발은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다.

시대적 발전단계와 비례하는 포장디자인에 대한 관심도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다시 말하면 국가 경제에 미치는 디자인의 역할은 한 국가의 경제 수준에 따라 좌우될 수 밖에 없으며, 특히 국민 소득과 디자인에 대한 관심은 정비례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965년도에 설립된 한국디자인센터의 목적은 산업화하는 국가정책에 따라 제품을 수출하는 상품으로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제품디자인과 포장디자인의 개선에 있었다. 그러나 의욕과는 달리 제도나 운영에서의 문제도 있었으나 또 한편으로는 산업과 제품의 품질이 디자인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수준에 있지 못하였으며 일반인의 수준도 디자인의 생활화나 인식이 뒤따르지 못하였으므로 현재 까지도 실질적인 기여의 결과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1인당 국민소득이 5천 달러에 이르게 되면 디자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구체화되기 시작한다는 선진국의 예에서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도 1980년대에 1인당 국민소득 5천 달러를 넘어서는 시기를 분기점으로 하여 사회적인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노력들이 국가 특히 기업측에서 현저히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60-70년대의 경제적 여건이 형성되기 이전에 국가적 차원에서 성급하게 실시하려 했던 경우와는 다른 것으로 국민의 경제적 여건과 생활이 필요성을 강하게 요구하는 현실적 바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새로운 각도로의 전개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일본은 GNP 1만 달러를 넘어서면서 디자인의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디자인 산업이 급성장하게 되었으며 일본적인 전통을 바탕으로 한 포장디자인의 수요나 수준이 급상승하여 세계적인 수준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이것은 경제 대국으로서의 힘을 배경으로 하는 면도 있으나 그것보다는 전통을 보존하고 소중히하며, 연구발전시켜 산업과 연계시키는 노력이 꾸준히 진행되어온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일본에 의해 물리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황폐화가 가져온 공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의 복원과 재정립을 통해서 발전

의 기틀을 마련하는 일이 우선 시급한 실정이다. 국민소득이 향상 된다고 해서 자연히 전통성이나 문화가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관심이 고조된다는 것일 뿐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교육을 통해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박물관이나 전통 자료실을 설립하여 우리의 전통과 포장문화를 학술적으로 정리하고, 그 특징과 가능성을 제시하는 학문과 역사성을 통해 자긍심과 가치체계를 우선 정립하여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자율적인 긍지와 필요성을 인식시켜 주고, 미적 판별력의 가능성을 인지하게 함으로써 포장 디자인을 향상시키는 진흥정책에 적극 참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 해 주어야 한다.

이것은 총체적으로 균형된 정책과 인식을 바탕으로 운영되고 추진 되어야 하며, 우리가 이 시대에 해결하여야 할 필수적 조건의 명제이며 속명적으로 받아 들여야 할 대상이기도 하다.

참고문헌

- 권명광, 한국현대그래픽디자인의 형성과 그 전개, 홍익대, 1973.
 김용구, 전통과 현대성, 1980.
 김철준, 한국문화 전통론,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86.
 이동준, 전통문화의 가치관, 문우사, 1982.
 이문웅, 문화의 개념, 일지사, 1993.
 인권한, 한국민족학사, 열화당, 1978.
 전진삼, 디자인 문화의 시대, 도서출판, 1993.
 정경원, 디자인이 경쟁력이다, 웅진출판, 1994.
 정시화, 현대 디자인 연구, 미진사, 1984.
 홍일식, 21세기와 한국전통문화, 현대문학, 1994.

전통의 고수 모방의 단계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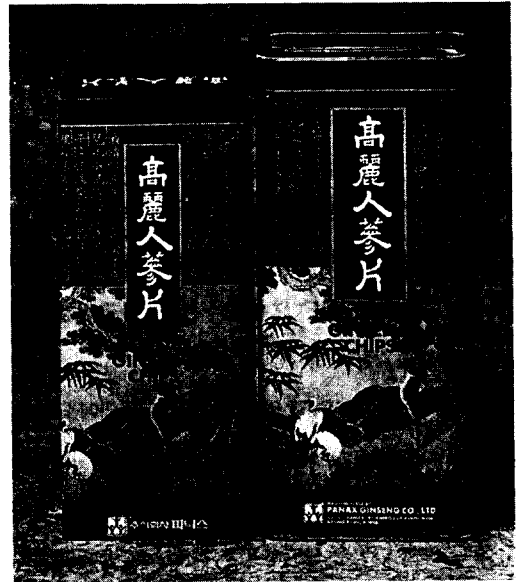


그림 1-1 고려인삼차 포장디자인 (19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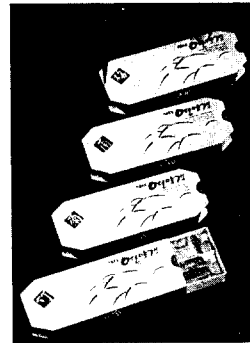
그림 1-2 고려인삼차 포장디자인 (1993)

그림 1-3 영양갱 포장디자인 (1987)

1-2



1-3



1-4



1-5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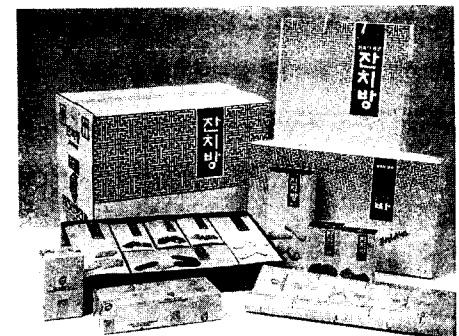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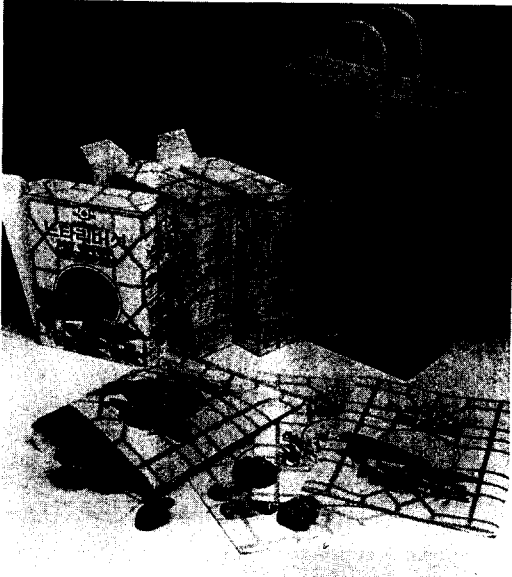


그림 1-4 강정 포장디자인 (1987)

그림 1-5 우황청심원 포장디자인 (1989)

그림 1-6 한과류 포장디자인 (1993)

2-1



산업디자인전(구 상공미전)에 출품된
포장디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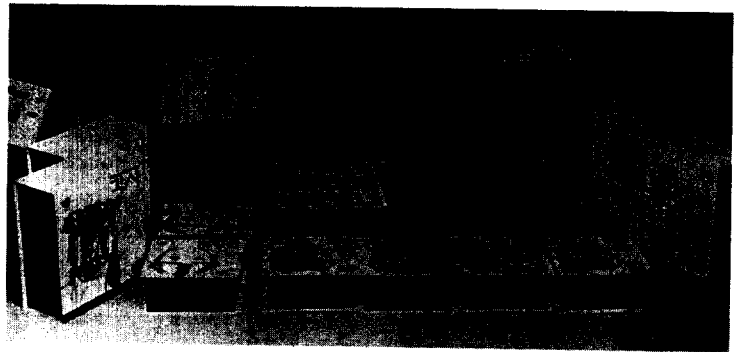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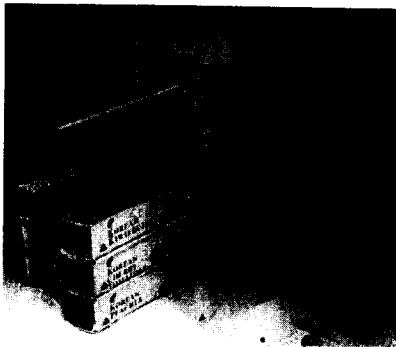
전통의 고수 전시효과 대형화하고 있다.

그림 2-1 느타리버섯 포장디자인 (1991)

그림 2-2 근이래 포장디자인 (19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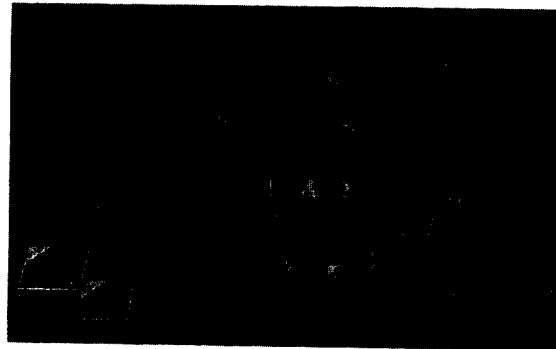
그림 2-3 권룡발 포장디자인 (1988)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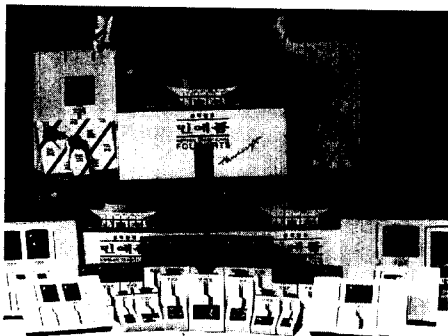


2-3

2-4



2-5



2-6

그림 2-4 화문석 포장디자인 (19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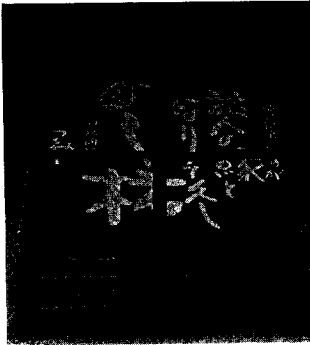
그림 2-5 상주꽃감 포장디자인 (1991)

그림 2-6 민예를 포장디자인 (1988)

일본의 현대 포장디자인 ①

질적으로 수준높은 생활화가 이루어지고 세계화가 실현되고 있다.

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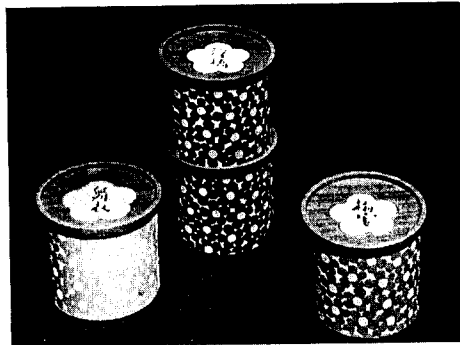


3-2

그림 3-1 전통과자 포장디자인 (1971)

그림 3-2 일본 전통과자 포장디자인 (1982)

그림 3-3 과자 포장디자인 (1970년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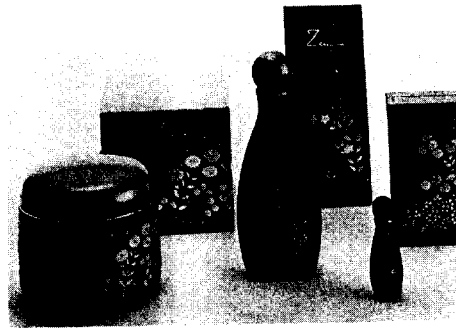


3-3

그림 3-4 향수 포장디자인 (1970년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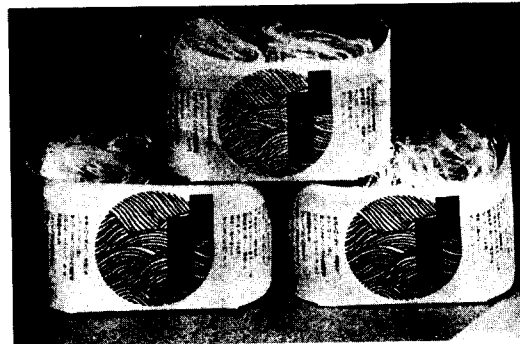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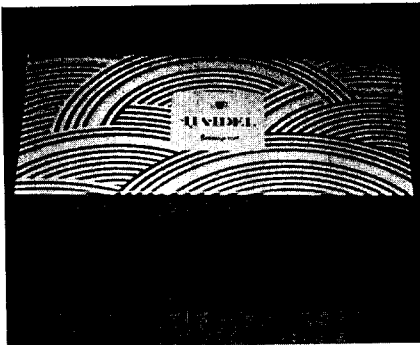
그림 3-5 초코렛과자 포장디자인 (1977)

그림 3-6 연류 포장디자인 (19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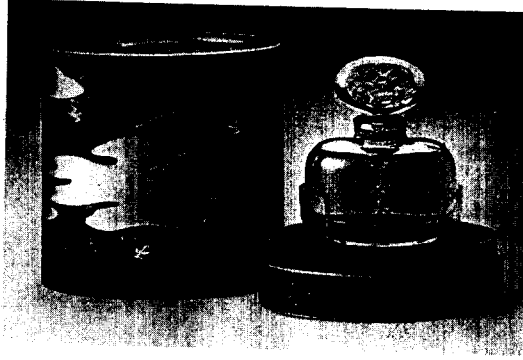
4-4

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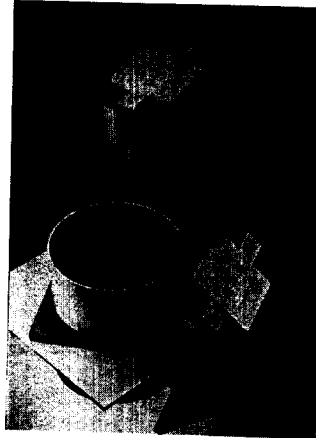


3-6

1-1



1-2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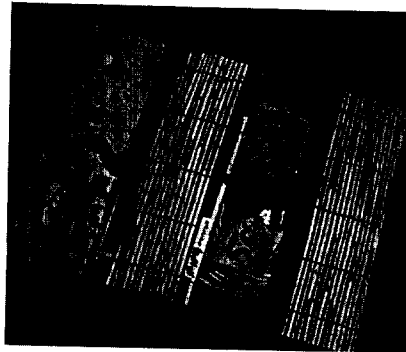


그림 4-1 향수 포장디자인 (1984)

그림 4-2 일본차 포장디자인 (1988)

그림 4-3 연류 포장디자인 (1984)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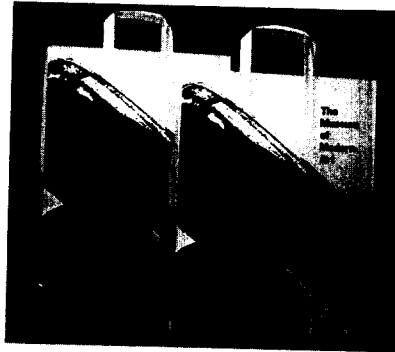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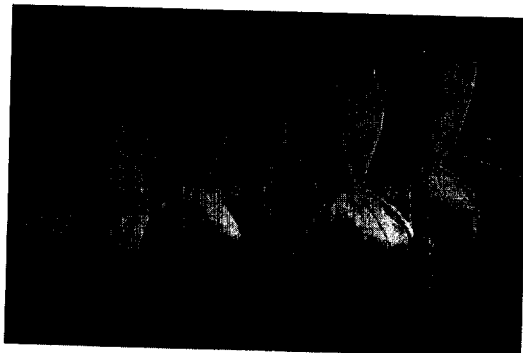


그림 4-4 뉴욕현대미술관 쇼핑백 디자인 (1989)

그림 4-5 전통과자 포장디자인 (1985)

그림 4-6 식물 포장디자인 (1989)

1-5



1-6

